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 등 '마음 모아 이웃사랑'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생활목공예반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한 탁자 7세트를 지역 내 경로당과 청소년문화의집 등지에 기증했다.

반딧불전공예문화촌(반디공작소)에서 진행된 이날 기증식에서 수강생들은 "직접 만든 목공예 수업을 통해 만들었던 것을 기부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재능기부도 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과 정보도 얻게 돼 기쁘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초 공예자식부터 기술을 직접 연마해서 제작한 작품을 귀하게 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부가 지역사회 전체에 훈풍을 불러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화에서도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80만 원을 기탁했다. 이종선 회장은 "회원들 모두가 고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오늘의 기부가 자연특산물 무주를 발전시키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든든한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화는 무주군 출향인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인 2014년부터 랩광고 등을 통해 '무주반딧불'·'농·특산물'과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차량 내부에도 무주반딧불축제 등 다양한 홍보물을 비치해 대전지역 주민들에게 무주를 알리고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해마다 이웃돕기와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는 무주군에 불우이웃돕기 150만 원, 무주군교육발전기금에 장학금 15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380만원을 기탁해 귀감이 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에코융합습염연구원, 익산시에 고향사랑 기부

익산시는 에코융합습염연구원이 30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고향사랑기부금 120만 원은 에코융합습염연구원 시민강원장과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해 마련했다.

시민강원장은 "익산의 발전을 성원하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에코융합습염연구원 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은 더욱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담배품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공제) 및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담배품을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 주천면, 농촌 일손돕기 나서

남원시 주천면은 30일, 기획실 농촌활력 등 3개 부서 직원 30여명은 주천면 장안리에서 2.085㎡(630평) 규모의 고구마 심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태는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가주는 작업 후 "날이 더워져 걱정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작업이 수월하게 잘 마무리됐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처음 참여한 신규 직원은 "직접 현장에서 일해보니 농가의 어려움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고 앞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대 교수회 초청 특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9일 JJ아트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의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주대 교수회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이날 특강은 지자체와 대학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강한 경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비상하는 전주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로'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는 전주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연을 듣고 시장에게 질문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전주-완주 간 통합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 및 대응방안, △전주전 개발의 문제 및 공존 가능한 생태하천, △전주-완주 간 버스노선 문제 등이 다뤄졌다.

김명식 교수회장은 "이번 특강은 계기로 전주시와 전주대학교가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시와 지역대학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기자

'시골풍경 색을 더하다'... 진안마을만들기지구협, 농촌재능나눔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회장 박상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2024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 일일단체 활동사업으로 마을 노후된 골목길에 벽화꾸리기(시골풍경에 색을 더하다) 사업을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다.

벽화꾸리기는 벽화전문작가 DNA 팀과 진안제일고 1학년 학생들 마을 활동가들의 재능기부와 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리가 안된 골목길의 오래된 벽화를 지워내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모습과 전통을 담은 벽화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첫번째로 진행된 소토실 마을은 완나물과 두부, 콩팥 고사리 등 마을의 특산물로 마을 골목에 색을 입혔고, 원반마을은 기차궤에 유채꽃으로 물든 마을 풍경을 담았다.

하가막마을은 다양한 체형 프로그램, 학동마을은 꽃감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그려주며 포동마을은 오래



된 포토존을 새롭게 보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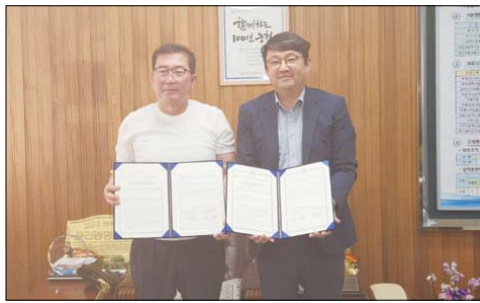
DNA이진우 작가는 "대중화 된 그림이 아닌 마을민의 전통과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그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상일 회장은 "많은분들의 재능기부로 오래되고 침체되었던 마을 골목길이 화려하게 변화되어 마을의 환경과 주민들의 마음까지 환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군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는 2017년 부터 농촌재능나눔사업으로 마을 환경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복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벽화꾸리기사업에 찾아가는 의화·의교실, 백운면 돌봄센터와 협업으로 원예치유교실도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선관위, 구천동농협·무주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정우찬)와 구천동농협협동조합(조합장 김성근), 무주농협협동조합(조합장 박동열)은 지난 21일, 29일 각 조합의 조합실에서 온라인투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축·개발한 시스템으로, PC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정확하게 정책결정, 구성원 의견수렴, 대표자 선출 투표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구천동농협협동조합, 무주농협협동조합은 임원선거 및 정



책결정 선거 등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각 기관의 협약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개표결과를 제공하는 등 각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kvoing.gnkr) 또는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063-322-1300)에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도동동, 찾아가는 이불세탁 봉사 가져

남원시 도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30일 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은운 이하 복지관) 이동세탁 차량 지원으로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이불세탁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탁 봉사는 도동동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을 위해 도동동과 복지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됐으며, 이동세탁 차량이 도동동을 방문해 생활자원사,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의뢰된 취약계층 가구의 이불을 세탁해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했다.

복지관 임은운 관장은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이불세탁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동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은 동 자체적으로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방



문 신청이 가능하고 상시 운영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2024년 지방세 연찬회 우수상 수상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5월 29일 개최된 '2024년 지방세 연찬회'에서 군산시 세무과 이상미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순창 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연찬회'는 지방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 및 시·군간 소통·협업 모색을 위한 취지로 열렸으며,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미 주무관은 '버려진 세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연구주제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시스템이 미비한 부과 체계에 대한 문제 인식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이재훈 기자



김제시,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9일 순창 일랜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업무 연찬회는 새로운 지방세 환경에 대응해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 및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최된다.

시 대표로 참가한 최동광 주무관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율 발굴 방안을 제시했고, 실제 민원 사례를 접목해 쉽게 설명함으로써 평가 위원과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점수와 많은 호응을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시는 '2023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2위를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제=곽태기 기자



진안군, 2024년 지방세 연찬회 수상... 4년 연속

진안군은 지난 2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주관한 2024년 지방세 연찬회에서 진행된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찬회는 재정분권 등 지방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로 도내 지방세 담당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무과 김주희 주무관은 '디지털 휴먼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발표하며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충과 신세원 발굴 방안을 제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앞서 진안군은 2024년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평가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52백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협, 학교 밖 청소년 합격 축하 격려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9일 김제시농협동조합(이사장 백강석)이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합격 축하 격려금 8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경제관형성을 위한 금융교육을 지원했다. 김제시농협동조합은 지난해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축하 격려금, 금융교육을 지원한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자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백강석 김제시농협동조합(이사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이어 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